

사회

유형가·원룸촌이 성범죄 ‘블랙홀’

광주·전남 하루 평균 3.6건 발생... 10건중 3건 서구·북구서

#1. 태권도장 관장인 이모(33)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수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벌이다가 광주북부경찰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을 몰래 훑은 뒤 사야나 새벽 시간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침입해 목발 짓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많고 방범이 취약한 원룸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2. 윤모(24)씨도 지난 8월20일 새벽 5시50분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A(여·22)씨의 원룸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원룸 침문을 이용해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윤씨가 원룸을 돌면서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지난 2008년~2012년 8월)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의 30%가량이 급속도로 원룸이 증가한 광주시 서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구도심지역과 함께 CCTV 등 치안기반시설이 부족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광주 3248건, 전남 2816건 등 모두 6064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이 발생했다.

시·군·구별로는 광주시 북구와 서구가 각각 1006건, 803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10건 가운데 3건이 서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어 광주시 광산구(631건), 목포시(573건), 순천시(482건), 광주시 동구(453건), 여수시(427건), 광주시 남구(355건)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곡성에서는 28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으며, 구례 32건, 진도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구 1만명당 발생건수에서는 광주시 동구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시 서구(25건), 목포(22.9건), 광주시 북구(22.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구도심지역인 광주시 동구

구를 비롯해 원룸과 유증시설이 급속도로 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 광주시 서구와 북구, 목포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도 지난 2008년 102건이던 성범죄가 최근 첨단·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원룸과 유증시설이 늘면서 지난해 163건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만도 모두 157건이 발생했다. 박경철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원룸촌, 공사장, 공터 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예방지도를 만들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성폭력범

■ 최근 5년(2008~2012년 8월말) 광주·전남 시군구별 성범죄 현황

지역	건수	지역	건수
동구	453	보성	54
서구	803	영광	88
남구	355	화순	119
북구	1006	함평	54
광산	631	영암	71
목포	573	장성	45
여수	427	강진	39
순천	482	담양	65
나주	147	곡성	28
광양	203	완도	58
고흥	58	무안	71
해남	104	진도	38
정흥	60	구례	32

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말) 광주·전남 시군구별 성범죄 현황

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광주 3248건, 전남 2816건 등 모두 6064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이 발생했다.

시·군·구별로는 광주시 북구와 서구가 각각 1006건, 803건 등으로 가장

순천 택지공사장 중장비 3대 불타

순천의 한 택지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들이 잇따라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47분경 순천시 해룡면 오전지구 택지개발지구 현장에서 배모(45)씨 소유의 굴착기 등 3대가 불에 탄 것을 현장에 일하러 나왔던 덤프트럭 기사가 발견, 신고했다.

최모(57)씨는 “작업을 위해 이른 아침 공사장에 나와 보니 굴착기 2대가 모두 불에 타고 1대는 연기에 그들러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들린 굴착기 안에서 신문지와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된 점, 인부들이 도착하기 전 불에 탄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나원침 (8682) 김종두



제주시 밀입국 3명 구속

완도해양경찰은 4일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서 완도도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김모(35), 알선책 주모(36)씨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사증 중국인인 김씨는 지난달 5일 제주항에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완도항으로 나오려다가 밀입국 혐의를 받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친딸 성폭행 30대 딸 징역 7년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인데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위해 엄하게 처벌하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임씨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14)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를 대상으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12~13점으로 ‘중’에서 ‘상’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장애 3급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형선기자 chadol@kwangju.co.kr



뒤집힌 차량

3일 낮 12시10분경 광주시 북구 누문동 천변우로에서 다문화여성 A(29)씨가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아래 천변으로 추락해 뒤집혀 있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서 차량 3대 충돌 1명 사망

주말·휴일 교통사고 잇따라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산타모, SM5, 소나타 등 차량 3대가 연이어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50분경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산타모, SM5, 소나타 등 차량 3대가 연이

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산타모에 타고 있던 홍모(여·7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각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낮 12시10분경에는 광주시 북구 누문동 천변우로에서 다문화여성 A(29)씨가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

고 2m 아래 천변으로 추락했다. 이 차량 뒷좌석에는 A씨의 시어머니 노모(63)씨와 두 아들(4·1)이 타고 있었으나 차량이 천변 잔디밭에 떨어졌고 아이가 유아용 카시트에 타고 있어 탑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날 오후 6시35분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 셋트육교 앞 도로에서 박모(31)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정모(70)씨를 들이받았다. 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물주 만나게 해달라” 자살소동

스포츠센터 경매 비리 의혹 입주자 가족

경매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이 건물 입주자 가족이 “건물주를 만나게 해달라”며 자살소동을 벌였다.

4일 오후 4시 39분경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입주자 가족 김모(47)씨가 6층 난간에 올라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과 경찰 등 30여명이 출동했으며 추락에 대비해 구조용 에어 매트리스가 설치되는 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건물주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동을 벌였고 1시간여만인 5시45분경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의 설득에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 건물 품질방의 매점을 운영해온 부인이 보증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주가 바뀌어 인수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날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등유넣고 경유로 조작 유가보조금 4억 편취

값싼 등유를 넣고 경유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화물알선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주유소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은 4일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여 정부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화물알선업체 대표 나모(52)와 주유소 업주 등 2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나주에서 화물알선업체를 운영하며 광주와 나주의 주유소 14곳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은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고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 4억2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권업입점종

- 1층 농협, 카페베네, 편의점 입점 확정
-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 6~7층 전문학원
-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완료

시공 | 나로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016-885-0881

NAVER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물이라든가 별로 피곤하지 않은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二重像)을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이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할 때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임상에서 미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속이 답답하고 힘이 떨어진다. 폭주하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가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승-9820호 (광주)